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영광읍 남천사거리에서 열린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의 출정식에서 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영광전통시장 앞에서 열린 장현 영광군수 후보 출정식에서 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재연(오른쪽)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3일 영광전통시장에서 이석하(가운데) 영광군수 후보 출정식을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

“군수 선거 맞아?”… 야3당 지도부 총출동 ‘지지 호소’

영광군수 재선거 선거운동 첫날

민주·혁신·진보당 대표 출정식 참석
장세일 “기본소득 실현·내수 활성화”
장현 “부정부패 타파·모범행정할 것”
이석하 “영광 명예이자 자존심 될터”
오기원 “군민 잘 사는 영광 만들 것”

“아따 이게 뭔일이당가. 내가 알던 군수 선거 맞아? 대선도 이렇게 복잡시렵지 않겠어. 완전 잔치판이네 잔치판.”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영광군수 후보들은 각 당의 ‘매머드급’ 지원을 받으며 선거 출정식을 열었다. 이번 재선거는 지역적 특성과 달리, 호남 정치지형과 2026년 지방선거의 민심을 가늠할 ‘풍향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각 당이

일찌감치 ‘중앙당 차원 총력전’을 예고했다.

이날 오전 9시께 영광버스터미널 일대는 파랑·민트·노랑·남색 등 각기 다른 색의 유니폼을 입은 선거운동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후보의 유세차량 앞에서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받기 위해 연신 지지를 호소했다.

터미널 곳곳에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비에도 후보자들의 출정식을 보기 위한 지지자들이 몰려와 뜨거운 선거 열기를 실감케 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터미널 남천사거리에서 출정식 깃발을 먼저 들어올렸다. 이곳은 날찍한 사거리 특성상 많은 인원이 운집할 수 있어 ‘민주당의 전통 유세지역’으로 꼽힌다.

이날 민주당 중앙당·광주시당·전남도당 등에서 나온 약 500명의 당원들은 각

모퉁이마다 자리를 잡고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거나 ‘엄지춤(기호1번춤)’을 쳤다. 여기에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해 한준호 최고위원,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박지원·이개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강위원 더혁신 전 상임대표 등도 가세해 마치 ‘대선 분위기’를 방불케 했다.

이재명 대표는 “한반도 평화·의료대란·쌀값안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하지만 경제는 파탄나고 민생은 엉망으로 가고 있다”며 “무능하면 노력하고 사람을 잘 뽑으면 되는데 (지금 정부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번 재보선은 ‘미션선거’지만 윤 정권을 2차 심판한다는 것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함께 맞붙게 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강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대표는 “최전선에서 무도한 정권과 큰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창을 옆으로 찌르고 있는 격이다. ‘소탐대실’ 해서는 안 된다”며 “더 큰 대의인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를 위해 이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말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쌀값 안정화법 도입 △영광 기본소득 도입 등을 약속했다. 곳곳에서는 ‘울소!’ ‘이재명!’ ‘민주당 만세!’ 등의 응원이 쏟아졌다.

장세일 후보는 “이 대표와 제가 영광사랑지원금 100만원 우선 지급을 꼭 약속드리겠다”며 “영광을 기본소득 최초 실현지로서 모범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 침체된 영광지역 내수 경기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200m 떨어진 영광터미널시장 건너편 광장에서는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출정식에 나섰다. 조국 당 대표를 비롯해 서왕진·정춘생·강경숙 의원 및 지

자 등 약 500명의 유세단이 투입된 혁신당은 단상에 올라 필승을 다짐했다.

조국 대표는 “혁신당이 민주당에 비해 조직·자금력은 약하지만 이번 군수선거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하지 않겠나”며 “이는 영광에 변화·혁신이 필요하다는 증거다. 관성대로 진행되는 군정을 타파하겠다. 영광 발전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만들 장현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대표는 “지금은 대선이 아니다. 영광을 포함해 호남지역에서 어느 당이, 어느 후보가 제대로 된 정책으로 청렴한 군정을 펼 수 있을지 경쟁하는 것”이라며 “제목에 같이 들어와도 윤석열, 국민의힘과 손잡지 않겠다. 장현 후보가 당을 옮길 이유도 없다. 대선에서는 야권이 한뜻으로 일치단결하겠다”고 야권 분화 우려에 선을 그었다.

▶ 3면에 계속
오지현·정성현 기자

광주·전남 10도 이상 큰 일교차… 주말엔 다시 가을비

가을비가 훑고 간 광주·전남지역은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며 대체로 맑겠으나, 주말에는 다시 비가 내릴 전망이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기온도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

인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6도, 낮 최고기온은 24~26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9도, 낮 최고기온은 24~27도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6일에는 다시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0~20도, 낮 최고기온은 22~27도로 전망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출·퇴근 길에는 두툼한 겉옷을 챙겨 입는 것이 좋다”며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교통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에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타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